

보도시점 2026. 6. 19.(금) 배포 즉시

## 구직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생활과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# 1. 관련 기사

□ 6.19.(금) 매일경제 - ‘시럽급여’ 된 실업급여... 65%는 끝까지 받아

- 한국의 실업급여 만기 소진율이 미국 등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아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돕는 ‘디딤돌’이 아닌 ‘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돈’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거세다.
- 주요국들은 실업급여가 만기 수급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기 다른 장치를 두고 있다.

### 2. 설명 내용

□ 정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속히 질 좋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

- 수급자의 재취업 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제도\*를 운영하고 있으며, '25년 기준 9.9만명\*\*의 수급기간 단축에 기여했음

\* 구직급여 수급가능일수의 1/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, 잔여 구직급여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

\*\* 전체 수급종료자(128만명) 대비 7.8%

- 또한,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재취업지원을 지속적  
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

－ 1:1 상담을 통해 재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돕고, 유관기관\*과 연계하는 등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,

\* 여성 새일센터, 중장년 내일센터, 제대군인 지원센터,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

- 취업지원 서비스 외에도 복지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들에게는 유관 기관\*과 협업하여 맞춤형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\* 지자체 복지지원팀,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등

- 특히 취업역량 개발이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을 강화\*하여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있음

\* 수급 초기 집중 관리, 구직활동 의무 강화, 고용센터 출석 의무 강화 등

- 향후에도 집중적인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추가로 발굴하여, 맞춤형 취업경로 설계 등 지원 강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음
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영기 (044-202-7368)
	고용지원실업급여과	담당자	사무관	박채원 (044-202-7909)

